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행복한 병원 만들기 ‘공감·참여’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7일 ‘Happy Hospital Season 9’ 캠페인을 개최했다.
‘2017 공감·참여’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최근 환자 경험 평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 환자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불만 등 치료 결정 과정 참여기회에 대한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환자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 활동이다.
캠페인 주요 활동으로는 병원 1층 로비 눈 맞춤 세트장에서 1분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 공감하기, 직원과 환자 간 감사카드 작성하기, 병실 내 예절 활동을 통한 올바른 병실 문화 만들기, 더 많은 환자들의 예약 진료 기회를 위한 병원 예약 부도 근절하기 등이 있다. 한편, 2008년을 처음 시작으로 출발한 ‘행복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했다.



신경과 김광기 교수, 백석 2동 주민센터 건강강좌 개최

신경과 김광기 교수는 지난 8일 백석 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치매와 그 예방법’이란 주제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관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 교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뇌 건강 유지에 관해 설명하고, 치매 환자와 일상생활의 중요성 및 치매에 대한 대처방법과 극복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맞으려면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노년기의 건강한 뇌 기능은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유지, 식습관, 수면습관, 스트레스 관리,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친구 가족들과 즐겁게 생활하기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고 견학 실시

지난 8일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여고 봉사부 동아리 학생 10여 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원내 봉사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해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학교 내 파라미타 봉사부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들이 본원에 봉사활동과 직업체험에 대한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병동에서 치료 소모품 만들기과 채혈 이송 등 입원 병동 일손 돕기에 나섰다. 또한, 봉사활동 이후 진로체험 활동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치료실, 약제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직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의료인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견학을 계기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학교 부설병원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생생한 의료 현장 속에서 보고 배우며 체험을 통해 장래희망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연우회, 김포 가연마을 중증 장애인 시설 의료봉사 다녀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불자모임 연우회는 지난 7월 29일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가연마을 중증장애인 시설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권범선 연우회장을 비롯해 진영숙 간호부장, 윤효영 봉사부장 등 연우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활동으로 중증 장애인 환우 30여 명에게 물리치료, 수액요법, 약물치료 등 의료지원을 펼쳤으며, 치료 후 연우회 회원들은 장애인 환우들과 함께 인근 공원을 찾아 환우들과 물 썰매를 함께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연마을은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연우회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